

# “수해 신속 복구...철저한 안전 조치를”

### 김지사, 광양 시설하우스·진도 주택 침수 현장 방문 주민 위로...농배수로 신속 정비·재해보험 가입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광양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지와 진도 주택 피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도민을 위로하고 호우 대비 농배수로 신속 정비 등을 지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전남 지역엔 평균 64.0mm의 비가 내렸다. 지역에 따라 광양 중동 189.9mm, 신안 홍도 182.5mm, 진도 의신 169.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현재 주택 침수 161건, 농작물 침수 280ha의 피해가 발생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호우 피해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목이버섯 등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를 입은 광양 진상면과 주택 및 마을회관 침수 피해를 입은 진도 의신면 도목마을 피해 현장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당부했다.

특히 광양 목이버섯 시설하우스 피해 현장에서 김 지사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가 커 안타깝다”며 “조속한 농가 피해 복구

와 함께 농배수로 등을 신속하게 정비해 애써 키운 농작물 침수 피해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피해 농가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12채와 마을회관 침수 피해를 입은 진도 도목마을은 현재 청소 완료 후 건조를 진행 중이며 자원봉사자 50여명이 함께 복구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 협업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 복구상황 점

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 복구 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조치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재해 대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지, 축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침수 취약지역 등 예찰을 강화하면서 재해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면밀한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도로 복구 등 재해 복구 과정에서 접근 제한, 작업자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광주시, 논산 수해복구 활동 지원

### 통합자원봉사단 80명 파견·긴급 구호물품 전달

광주시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논산시에 오는 19일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80여명을 파견, 긴급 구호물품 전달과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논산시 가야곡면 일대에서 침수 가옥과 하우스 물빼기, 작업·오물 제거 및 청소 등 수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또 긴급 구호물품으로 빗어울수 3천병과 관계기관 후원 물품인 음료·라면·생필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에도 논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8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지

난 5월 논산시에서 수해복구 현장사례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논산시와 교류활동을 이어왔다.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구호물품을 지원하거나 함께할 자원봉사자들은 광주 시자원봉사센터(062-613-5706) 또는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1365)로 문의하면 된다.

강기정 시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주의 온기를 담도다”며 “피해 농가의 아픔을 나누고 힘을 보태기 위해 피해 복구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해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호우피해를 입은 광양진 진상면 청암리 한 시설하우스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주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공공배달업 ‘떡깨비’·‘땡겨요’ 할인캠페인

전남도가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18일부터 공공배달업 ‘떡깨비’와 상생배달업 ‘땡겨요’에서 민생경제 회복 할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공공·상생배달업 할인 이벤트 중 가장 큰 규모다.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확보한 예비비 5억원이 투입되며 매월 1인 4회,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해 소비자는 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업인 공공배달업 ‘떡깨비’와 상생배달업 ‘땡겨요’를 내려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전남 공공·상생배달업 민생경제 회복 할인캠페인’은 이미 추진 중인 할인 이벤트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떡깨비에서는 5천원의 할인쿠폰을, 땡겨요에서는 첫 주문과 재주문까지 1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상생배달업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은 중계수수료를 제공하며, 이 밖에도 가입비·광고비 또한 없어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규 가맹하는 경우 20만원 상당의 가맹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 ‘테크니컬 투어’로 혁신기술제품 창업기업 판로 뚫는다

### 수자원공사·투자자 등 (주)엘탑 실증 현장 찾아 기술 검증

광주시가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한 데 이어, 제품 구매사와 투자사 등을 연결하는 ‘테크니컬 투어’를 선보이는 등 ‘실증도시 광주’의 면모를 증명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광산구 우산동 풍영정천 인근 우산천변길에서 상수도 부식방지 관리전문 솔루션기업인 (주)엘탑의 ‘상수도부식방지시스템’에 대한 테크니컬 투어를 개최했다.

테크니컬 투어는 송광철 (주)엘탑 대표를 비롯해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실증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실증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테크니컬 투어는 기업과 제품 구매 희망 기관과 투자사를 연결해 창업기업 제품이 초기 실증(테스트)에 끝

지 않고 매출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한 (주)엘탑은 광산구 우산동 일대 3곳에 상수도부식방지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진행했다.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실증으로 입증한 (주)엘탑은 청주권, 경기권 기관과 계약을 맺는 등 매출 증대의 성과를 이뤘다.

광주시는 지난해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실증 시험무대(테

스트베드)를 구축, 36개 기업에게 실증을 지원했고 올해도 44개 기업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혁신기술 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혁신기술 제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테크니컬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매달 2억 적자 목표의료원 대책 절실”

### 박문옥 도의원 “병상 가동률 65%...도 지원해야”

전남도의회 박문옥(목포3) 의원이 17일 “목포시의료원 병상 가동률이 65%에 불과해 매달 수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목포시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9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4월 기준 65%로 급감했다”며 “매달 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

대응에 책임과 역할을 다했으나 전남도는 목포시의료원도 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붕괴를 방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삼 보건복지국장은 “목포시가 전남도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포시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금 깎아먹는

# 기생충이

#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